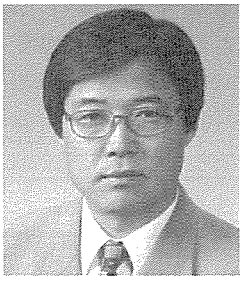
당장 이익보다 장기적 투자 힘써

- 18년간 발열장치 집중연구 -



이남용 : 동우에네스톤(주) 동우꽃돌침대 대표이사

동우꽃돌침대를 만드는 동우에네스톤(주)의 이남용 대표이사(49)는 요즘 18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1999년 5월 19일 제34회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은 데 이어 제15회 미국피츠버그발명전 최우수상 수상, 국내외 15차례 수상으로 인하여 해외에서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돌침대를 보내달라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업계에서 "의지의 한국인"으로 유명하다. 18년 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발열장치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 업계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지난 86년부터는 그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온돌침대를 만드는 일에 집중투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 대표이사는 온돌침대를 만들 때 기존 방식과는 다른 특수카본면상 발열체라는 히터를 사용했다. 이 발열체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서 그 효능이 입증됐다.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전자파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이다.

발열체에 쓰이는 소재 역시 독특하다. 미세한 입자로 된 첨단소재인 바이오세라믹과 도전성 특수카본 입자를 균일하게 합한 소재를 사용한다. 발열밀도가 균일하며 유효 발열면적이 크고 열효율이 높아 전력이 많이 절약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특수 보호필름과 원적외선 부직포도 침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한다.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상도 많이 받았다. 앞서 말한 산업포장 외에 세계발명대전 최우수상 수상, 세계4대 발명전 5차례 금상 수상 및 국내외 15차례 수상을 받았다.

전자파 자기장 안전거리 0㎝의 기술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발명특허는 물론 100여건의 의장,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있어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 많은 고생을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이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보너스를 더 얹어주는 등 직원들을 독려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또 지난해부터 국내와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해에 원적외선 방사특성 및 제반시험을 거쳐 한국원적외선협회로부터 품질보증(FI마크)업체로 지정 받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뛰어난 제품력으로 전국에 17개 매장을 개설하였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 눈을 돌려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실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10여년째 해외전시회를 돌며 꾸준히 제품을 알려온 결과였다.
이 대표이사는 사업가 지만 돈에는 큰 욕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보다는 최고의 동우꽃돌침대를 만들어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회사를 만드는데 비중을 두고있다.

본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9-5 진성빌딩 2층 / 전화 : (02) 514-6864~5

동우꽃돌침대